

[Creation Ministries International] Algae to oil
Algal 'slurry' turns to crude oil in minutes
조류(Algae)가 기름(oil)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밝혀지다.

by Jonathan O'Brien and Dr Carl Wieland on August 18, 2021.
2021.8.18 번역 신진호 박사

조류 현탁액은 몇분만에 기름으로 변합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녹조류와 물의 혼합액(전체 8~90%가 물일때 최상의 결과)에 350°C의 온도와 2,000Psi의 압력을 가하면, 60분 이내에 녹조류가 원유와 가스로 분해되는 것을 알아냈다. 유정에서 원유를 뽑아 항공유, 휘발유, 경유로 정제하고, 가스를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가정에 전력 공급하며 난방과 취사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공정이다.

수십 년동안 '화석연료' 기름과 가스는 조류와 식물(및 기타 땅에 묻힌 유기물)들이 암석에 천천히 갇히고, 지구의 열과 압력을 수백만년동안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백만 년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산업공정(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음)은 열과 압력으로 기름을 형성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열과 압력은 유기물이 땅속 깊이 묻힐때 겪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창세기의 대홍수 기간에 광범위한 규모로 일어났을 것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이 시간은 오늘날의 거대한 화석 연료 매장지를 생성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류를 기름으로 만드는 과정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1년동안 지속된 전지구적 대홍수 기간내 있었던 화산 활동(대격변)은 물의 화학적 균형과 온도를 변화시켜 방대한 양의 조류를 번성시켰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조류가 번성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약 4,500년 전의 전지구적 대홍수로 인

해 발생한 엄청난 양의 조류가 격변적으로 묻혀 흡수퇴적물에 매장되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석연료가 형성되는데 수백만년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증거들이 나올때마다, '자연적으로 수백만년이 걸리는 일을 단 몇분만에 처리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참고 . 모든 원유는 매몰된 식물 또는 조류 물질에서 추출되는 것인가요?

Courtesy of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Algal slurry

Courtesy of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Algal slurry and biocrude oil

일부 석유매장지, 특히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지에는 해양 생물, 특히 조개류로부터 추출된 바나듐이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원유가 매몰된 식물 또는 조류물질로 부터 추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매장된 식물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도 가능하다. 석탄이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기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Bass Strait 석유 매장지의 성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Gippsland의 석탄 매장지에서 파생된 화학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는 Gippsland의 석탄층이 땅속 깊은 곳으로 더 깊이 파고 들면서 Bass Strait의 기름이 형성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기름은, 지구 깊은 곳의 메탄 가스에서 직접 형성될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퇴적물이 전혀 없는 화성암에서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생물 활동이 기름형성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안되었다.

출처. <https://creation.com/algae-to-oil>